

## 『한독찬송가』의 출간과 그 의의

이 지 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재한독일어권교회(Evangelische Gemeinde Deutscher Sprache in Seoul & Korea, 약칭: EGDS)는 1999년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일원이 된 이래 2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독일 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한독찬송가』 출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재한독일어권교회의 공미화 목사를 포함한 성도들과 한국 및 독일의 다양한 교단(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의 자원봉사자들로 프로젝트 팀이 결성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독일 개신교 협의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5년여의 작업 끝에 2024년 7월 『한독찬송가』 초판 1쇄가 발행되었고, 독일과 한국의 교회에 약 5,000부 정도 배포되었다. 『한독찬송가』는 수록된 모든 찬송가에 한국어 가사와 독일어 가사가 공존하며 한국인들과 독일인들 간의 협업으로 출간된 최초의 찬송가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한독찬송가』는 한국과 독일 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한독찬송가』 출간 프로젝트를 주관한 재한독일어권교회는 1977년 6월 5일에 세워졌으며, 재한 독일인들이 중심이 되어<sup>1)</sup> 1978년부터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제 루터교회에서 루터교 전통에 기반하여<sup>2)</sup> 격주로 예배를 드림과 동시

- 
- 1) 재한독일어권교회 예배 참석자들은 재한 독일인들이 대부분이지만, 독일 예배 및 문화에 관심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 2)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루터교의 교세가 강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의 교세가 다른 교단들에 비해 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루터교 역사와 관련

에 재한 독일인들의 문화 행사, 친교 및 소통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sup>3)</sup> 2024년 7월 25일에 출간된 『한독찬송가』는 재한독일어권교회의 예배 음악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재한독일어권교회에서는 기존에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던 독일 개신교 찬송가(Evangelisches Gesangbuch)<sup>4)</sup>와 함께 한국어 가사로 번역된 독일 찬송가와 독일어 가사로 번역된 한국 찬송가를 알리기 위해 출간된 『한독찬송가』를 예배 음악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재한독일어권교회의 예배 음악의 외연이 확장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 찬송가와 독일 찬송가의 상호 수용 과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독일 찬송가가 어떻게 한국 찬송가집에 유입되고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주로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한국 찬송가와 독일 찬송가 간의 상호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sup>5)6)</sup> 따라서 본 연구는 『한독찬송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수록곡들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찬송가와 독일 찬송가의 상호 수용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독찬송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과 독일의 찬송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된 예배 음악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교단의 차이를 넘어 한국과 독일의 예배 음악의 상호 교류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하기에 재한독일어권 교회 역사를 포함한 한국 루터교 선교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하였다.

- 3) 재한독일어권교회는 루터교에 기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 소속된 예배자들도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초교파적인 이민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 행사와 관련하여 재한독일어권교회는 독일의 중요한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 마르틴 축제, 성탄절)마다 행사 일정을 주관한다.
- 4) 독일 개신교 찬송가는 독일어권 개신교 교회들이 사용하는 찬송가로,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개신교 교회에서 불리고 있다. 이 찬송가는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도입되었으며, 총 14개의 지역별 판본으로 출간되었다. 2017년에 독일 개신교 찬송가의 전면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결정되었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독일 개신교 찬송가 출간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출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한독일어권교회에서는 바이에른(Bayern)과 튀링겐(Thüringen) 지역에서 출간된 독일 개신교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
- 5) 하재송, "A Study of the German Hymns in Representative Korean Hymnals," 『개혁논총』 21 (2012), 231-258.
- 6) Sa Ra Park, "Das Liedrepertoire der evangelischen Kirche in Korea - Interkulturelle Beziehung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dem koreanischen Kirchenlied," (Ph.D. Diss., Johann-Wolfgang-Goethe-Universität zu Frankfurt am Main, 2020), 223-236.

본론에서 『한독찬송가』의 출간 과정과 관련하여 세 측면, 즉 (1) 가사 번역, (2) 저작권 문제, (3)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이 출간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적 차이에 관하여 논한다. 『한독찬송가』 출간 의의에 대해서는 예배적 의의와 디아스포라적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예배적 의의와 관련해서는 ‘회중 찬송’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디아스포라적 의의에 대해서는 ‘콘트라팍툼’(contrafactum)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한독찬송가』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공미화 목사와 문성모 목사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제시된 악보 예시는 연구자가 음악 사보 프로그램인 뮤즈스코어(MuseScore)를 사용하여 발췌하였다. 악보 인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인용된 찬송가의 저작권 소유자들(문성모, 한국찬송가공회, 테파우데 뒤셀도르프 출판사[tvd-Verlag Dusseldorf], 이말테[Malte Rhinow])로부터 악보 인용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음을 밝힌다.

## II. 『한독찬송가』의 구성과 음악적 특징

『한독찬송가』에는 총 384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찬송가는 크게 ‘신앙과 생활’(Glauben und Leben), ‘행사와 절기’(Jahr und Tag), ‘예배’(Gottesdienst)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표 1>은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의 주제와 세부 주제 및 이와 관련된 찬송가 곡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어린이 찬송’(Kinderlieder)이 한국의 『21세기 찬송가』와는 달리 ‘신앙과 생활’(Glauben und Leben)의 세부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21세기 찬송가』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어린이 주일’<sup>7)</sup>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 찬송’을 ‘절기와 행사’ 주제로 포함시켰으나,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은 ‘어린이 찬송’의 주제 범주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독일의 ‘어린이날’(Kindertag)

7)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

은 한국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고, 각 주(州)마다 공휴일 지정 여부가 달라서 ‘어린이 찬송’을 ‘행사와 절기’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표 1〉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의 주제 및 세부 주제

|                                     |                                                                                                                                                                                                                                                                                                                                                                                                                                                                                                                                                                                                                                                                                                                                                                                  |
|-------------------------------------|----------------------------------------------------------------------------------------------------------------------------------------------------------------------------------------------------------------------------------------------------------------------------------------------------------------------------------------------------------------------------------------------------------------------------------------------------------------------------------------------------------------------------------------------------------------------------------------------------------------------------------------------------------------------------------------------------------------------------------------------------------------------------------|
| 신앙과 생활<br>(Glauben und Leben): 142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믿음, 소망, 사랑(Glaube, Hoffnung und Liebe): 43곡</li> <li>2. 제자의 길(Nachfolge): 33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제자의 길과 섬김(Nachfolge und Dienst): 15곡</li> <li>2.2. 회개와 뉘우침(Bekehrung und Buße): 6곡</li> <li>2.3. 은혜와 용서(Gnade und Vergebung): 12곡</li> </ol> </li> <li>3. 가정(Familie): 28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가정(Familie): 4곡</li> <li>3.2. 어린이 찬송(Kinderlieder): 24곡</li> </ol> </li> <li>4. 성도의 교제와 교회(Gemeinschaft und Kirche): 38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예수(Jesus): 14곡</li> <li>4.2. 교회와 하나님 나라(Kirche und Reich Gottes): 8곡</li> </ol> </li> <li>5. 외쿠메네,<sup>8)</sup> 창조, 평화(Ökumene, Schöpfung und Frieden): 16곡</li> </ol> |
| 행사와 절기<br>(Jahr und Tag): 100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회력(Kirchenjahr): 70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대림절(Advent): 13곡</li> <li>1.2. 성탄절(Weihnachten): 20곡</li> <li>1.3. 주현절(Epiphanyas): 5곡</li> <li>1.4. 고난절(Passion): 16곡</li> <li>1.5. 부활절(Ostern): 8곡</li> <li>1.6. 성령강림절(Pfingsten): 7곡</li> <li>1.7.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sfest): 1곡</li> </ol> </li> <li>2. 절기와 하루(Jahres- und Tageszeiten): 30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절기(Jahreszeiten): 9곡</li> <li>2.2. 아침(Morgen): 12곡</li> <li>2.3. 저녁과 밤(Abend und Nacht): 9곡</li> </ol> </li> </ol>                                                                                                                                                                         |
| 예배(Gottesdienst): 142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배 부름과 기원(Eröffnung und Anrufung): 48곡</li> <li>2. 말씀 선포와 신앙고백(Verkündigung und Bekenntnis): 11곡</li> <li>3. 성찬(Abenmahl): 21곡</li> <li>4. 봉헌(Dankopfer): 7곡</li> <li>5. 기도와 간구(Gebet und Fürbitte): 27곡</li> <li>6. 보냄과 축도(Sendung und Segen): 15곡</li> <li>7. 의식(Kasualien): 13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 세례, 견신례, 결혼(Taufe, Konfirmation und Trauung): 4곡</li> <li>7.2. 임종과 장례(Abschied und Trauer): 9곡</li> </ol> </li> </ol>                                                                                                                                                                                                                                                                     |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 찬송가』에 비해 『한독찬송가』에서는 어린이 찬송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었다.

『한독찬송가』에는 현재 한국 교회 및 한인 이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6년에 발간된 『21세기 찬송가』에 비해 한국 찬송가와<sup>9)</sup> 독일 찬송가가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었으며,<sup>10)</sup>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곡들이 많은 편이다.<sup>11)</sup> 이는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이 찬송가 수록에 있어 동시대적인(contemporary) 음악을 선호했음을 시사한다. 『한독찬송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특정 작곡가의 찬송가를 비중 있게 수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 작곡가 데트레프 외커(Detlev Jöcker, 1951-)<sup>12)</sup>와 한국 작곡가 문성모(1954-)<sup>13)</sup>의 찬송가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sup>14)</sup> 한편, 『한독찬송가』에는 단선율 찬송가가 비교적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율 찬송가는 독일의 구전된 민요를 차용하여 작

- 
- 8) ‘외쿠메네’(Ökumene)는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세계,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오이쿠메네’(oikumene)에서 유래한 독일어 단어이며, ‘기독교인들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한다. 즉, 교단과 교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기독교인들 간의 하나됨을 뜻한다. 『한독찬송가』에서는 그리스어 표기법을 따라 ‘오이쿠메네’로 표기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 표기법에 따라 ‘외쿠메네’로 표기했음을 밝힌다.
- 9)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가 수는 127곡이며, 전체 645곡 중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 10)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한국 찬송가는 103곡이며, 독일 찬송가는 146곡이다.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한국 찬송가’는 한국인에 의해 작사·작곡된 찬송가를 뜻하며, 마찬가지로 ‘독일 찬송가’는 독일인(혹은 오스트리아인)에 의해 작사·작곡된 찬송가를 의미한다. 한국 찬송가에 비해 독일 찬송가의 수가 많은 것은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이 대부분 독일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찬송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독일 찬송가에 익숙했던 것에 기인한다.
- 11)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찬송가는 219곡이며, 이는 한국과 독일 찬송가를 비롯하여 영미권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작곡된 찬송가도 포함된다.
- 12) 데트레프 외커는 독일 뮌스터에서 태어난 작곡가이자 음악 출판가이다. 그는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교회 음악과 어린이를 위한 동요를 활발하게 작곡한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노래 세미나 및 강연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13) 문성모(1954-)는 신학자이자 교회 음악 작곡가로 대전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였고, 광주제일교회와 강남제일교회의 위임 목사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그는 한국찬송가개발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선율과 리듬에 기반한 찬송가 작곡에 주력하고 있다.
- 14)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외커의 찬송가는 12곡이며, 문성모의 찬송가는 79곡이다. 외커의 찬송가는 주로 ‘어린이 찬송’ 부분에 수록된 것에 비해 문성모의 찬송가는 『한독찬송가』의 세부 주제(표 1 참조)를 비교적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곡된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이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 민요 선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찬송가를 알리고자 하는 데 주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 III. 『한독찬송가』의 출간 과정

『한독찬송가』를 출간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재한독일어권교회의 공미화 목사<sup>15)</sup>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한·독 관계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2019년은 재한독일어권교회가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일원이 된 지 20주년이 되던 해였고, 작년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러한 한·독 관계의 역사적 의미에 착안하여 한국과 독일의 가교 역할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한독찬송가』 출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독일 찬송가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며 마찬가지로 독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한국 찬송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찬송가 가사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찬송가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독찬송가』 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독찬송가』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예배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독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sup>16)</sup>

공미화 목사의 언급을 통해 『한독찬송가』는 한·독 간의 외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출간되었으며, 그동안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찬송가 수용에 대한 상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독찬송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과 독일 찬송가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독 관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15) 공미화 목사(1978-)는 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 출신으로 본(Bonn)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2008년 독일 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녀는 현재 재한독일어권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독일학교(Deutsche Schule Seoul International)에서 종교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16) 2024년 9월 9일 공미화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 1. 가사 번역

『한독찬송가』 가사 번역을 위해 한국어와 독일어에 모두 능통하며 한국과 독일 양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교회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목사, 교회 음악가, 대학 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가사 번역에 참여하였고 매주 정기적인 줌(Zoom) 회의를 통해 번역 작업의 진행 과정을 논의하였다.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은 번역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간주하여 번역가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역량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같은 찬송가에 두 가지 다른 번역을 동시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독찬송가』 345장과 346장은 독일 찬송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sup>17)</sup>(*Aus der Tiefe rufe ich zu dir*)<sup>18)</sup>로 동일한 곡이지만, 한국어 가사 번역을 다르게 한 경우이다. 345장 가사는 박종화<sup>19)</sup>에 의해 번역되었고 346장은 문성모에 의해 번역되었다. <악보 1>은 독일 찬송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이다.

## &lt;악보 1&gt;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sup>20)</sup>

1. Aus der Tie - fe ru - fe ich zu dir: Herr, hö - re mei - ne  
Kla - gen. Aus der Tie - fe ru - fe ich zu dir: Herr,  
hö - re mei - ne Fra - gen.

17) 곡 제목은 연구자가 번역하였다.

18)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의 작사가는 독일의 신학자 우베 자이델(Uwe Seidel, 1937-2007)이며, 작곡가는 폴란드 태생의 독일의 교회 음악가 오스카 고트리프 블라르(Oskar Gottlieb Blarr, 1934-)이다.

19) 박종화 목사(1945-)는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경동교회에서 담임목회를 역임하였다. 그는 한국 교계에서 에큐메니컬 신학의 운동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실천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 이 곡의 저작권은 테파우데 뒤셀도르프 출판사에 있다.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는 구약성경 시편 130편 구절을 소재로 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악구가 반복되는 e단조의 곡이다. 화성 진행 역시 간결한 편이고, 악구의 종지가 명확하며, 각 악구의 종지 부분의 가사에서 각운 효과가 특징적이다(예: Klagen[탄식]-Fragen[물음]). <표 2>와 <표 3>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에 대한 박종화와 문성모의 번역 가사를 보여주고 있다.

### 〈표 2〉 「한독찬송가」 345장 번역 가사 (박종화 번역)

|                                                                                                                                     |                                                          |
|-------------------------------------------------------------------------------------------------------------------------------------|----------------------------------------------------------|
| <i>Aus der Tiefe rufe ich zu dir</i>                                                                                                |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                                           |
| 1.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höre meine Klag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höre meine Fragen.         | 1.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탄식 들어주소서<br>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물음 응답주소서  |
| 2.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öffne deine Ohr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Ich bin hier ganz verloren.      | 2.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귀를 여시옵소서<br>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잃은 자이옵니다  |
| 3.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achte auf mein Fleh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Ich will nicht untergehen.   | 3.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간구 살피주소서<br>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실족 않게 하소서 |
| 4.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Nur dir will ich vertrau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Auf dein Wort will ich bauen. | 4.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주만 의지합니다<br>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br>말씀 믿사옵니다  |

### 〈표 3〉 「한독찬송가」 346장 번역 가사 (문성모 번역)

|                                                                                                                             |                                                         |
|-----------------------------------------------------------------------------------------------------------------------------|---------------------------------------------------------|
| <i>Aus der Tiefe rufe ich zu dir</i>                                                                                        |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
| 1.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höre meine Klag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höre meine Fragen. | 1.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br>기도 하옵나이다<br>주여 나의 기도 들으사<br>응답하여 주소서 |

|                                                                                                                                     |                                                         |
|-------------------------------------------------------------------------------------------------------------------------------------|---------------------------------------------------------|
| 2.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öffne deine Ohr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Ich bin ganz verloren.           | 2.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br>기도 하옵나이다<br>갈길 잃은 자의 간구에<br>귀를 기울이소서 |
| 3.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Herr, achte auf mein Flehen,<br>ais der Tiefe rufe ich zu dir:<br>Ich will nicht untergehen.   | 3.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br>기도 하옵나이다<br>실족하지 않게 하시고<br>보호하여 주소서  |
| 4.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Nur dir will ich vertrauen,<br>aus der Tiefe rufe ich zu dir:<br>Auf dein Wort will ich bauen. | 4.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br>기도 하옵나이다<br>주의 말씀 의지하오니<br>응답하여 주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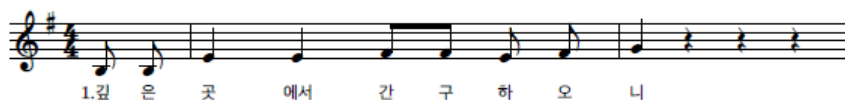
박종화의 번역 가사는 독일어 가사를 그대로 번역한 직역에 가까운 반면, 문성모의 번역 가사는 독일어 원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문맥에 맞게 변형시킨 의역에 가깝다. 독일어 원문 가사를 살펴보면,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 구절이 1행과 3행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박종화는 독일어 원문 가사처럼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의 번역 가사인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 구절을 동일하게 1행과 3행에 배치하였다. 반면 문성모는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의 번역 가사인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기도 하옵나이다’를 1행과 3행이 아닌 1행과 2행에 배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성모의 번역에서는 독일어 가사와 한국어 번역 가사의 배치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절 가사의 ‘Klagen’이라는 단어는 ‘불평’ 혹은 ‘탄식’이라는 뜻인데, 박종화는 번역 가사에서 ‘Klagen’의 원래 뜻인 ‘탄식’으로 번역한 반면, 문성모는 이를 ‘기도’로 의역하였다. 2절 가사의 ‘Herr, öffne deine Ohren’ 구절은 직역하자면 ‘주여, 당신의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볼 수 있는데, 박종화는 독일어 가사의 원문 그대로 ‘귀를 여시옵소서’라고 직역한 반면, 문성모는 이 부분을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의역하였다. 3절에서도 박종화와 문성모의 번역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박종화는 3절의 독일어 가사 ‘Herr, achte mein Flehen’을 원문 그대로 ‘간구 살피주소서’(‘Flehen’은 ‘간청’ 혹은 ‘애원’이란 뜻이고, ‘achte’는 ‘보호하다’ 혹은 ‘살피다’라는 뜻이다)로 번역하였으나, 문성모는 이 부분을 ‘보호하여 주소서’로 번역함으로써 동사인

‘achte’부분만 번역하고, ‘Flehen’의 번역은 생략하였다.

박종화와 문성모의 번역 가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가사의 화자(話者)인 ‘나’(ich)와 청자(聽者)인 ‘주님’(Herr)의 존재 여부이다. 박종화의 번역 가사를 살펴보면, 행위의 주체이자 화자인 ‘나’와 나의 간구를 들어주는 ‘주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문성모의 번역 가사는 ‘나’와 ‘주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곡의 제목인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에서 박종화는 ‘나’와 ‘주님’을 생략하여 번역한 반면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 문성모는 이 부분을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로 번역함으로써 화자인 ‘나’와 청자인 ‘주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성모는 1절 번역 가사인 ‘주여 나의 기도 들으사’(Herr, höre meine Klagen)와 4절 번역 가사인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Auf dein Wort will ich bauen)를 통해 청자인 ‘주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성모의 번역 가사는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자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가사의 차이는 첫 번째 악구에서 음악적인 차이점으로도 나타난다. <악보 2>와 <악보 3>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의 첫 번째 악구를 제시한다. 『한독찬송가』 345장의 첫 번째 악구는 세 번째 박자에 등장하는 ‘간구’가 강조되는 반면에, 『한독찬송가』 346장의 첫 번째 악구에서는 못 갓춘마디 다음에 등장하는 ‘주’(Herr)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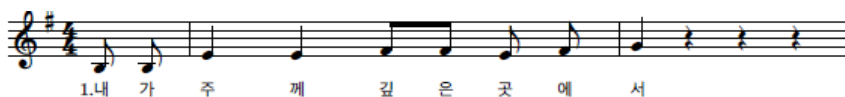
<악보 2> 『한독찬송가』 345장 ≪깊은 곳에서 간구하오니≫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의 첫 번째 악구 (박종화 번역)



<악보 3> 『한독찬송가』 346장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Aus der Tiefe rufe ich zu dir*)의 첫 번째 악구 (문성모 번역)



『한독찬송가』 345장과 346장의 수록과 관련하여 공미화 목사는 “가사 번역 작업은 기본적으로 번역가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역과 의역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번역 작품 자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sup>21)</sup>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박종화와 문성모의 번역 가사 모두 훌륭한 번역이라고 판단하여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에서는 두 가지 번역을 동시에 수록하기로 결정했다”<sup>22)</sup>고 덧붙였다. 이말테 목사<sup>23)</sup>에 따르면, 찬송가의 가사는 작사자의 개인적인 신학 사상을 드러내며, 독일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가사와 독일어 가사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학 사상을 성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4)</sup> 이러한 측면에서 박종화의 번역 가사는 ‘나’와 ‘주님’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신학 사상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성모의 번역 가사는 ‘나’와 ‘주님’ 간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추구하는 신학 사상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저작권 문제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곡들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사가, 작곡가, 번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작사가와 작곡가 모두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경우에는 번역가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 예를 들어, 『한독찬송가』 143장 《문 높이 활짝 열어 보라》(*Macht hoch die Tür*)는 1704년에 작곡된 곡이며, 가사는 1623년에 쓰인 곡이라서 작사가와 작곡가 모두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곡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번역가인 이말테가 갖는다.<sup>25)</sup> 또한 저작권은 원작자(작사가와 작곡가)가 소유하거나, 출판사, 저작권 협회 또는 한국찬송가공회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독일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

21) 2024년 9월 27일 공미화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22) 2024년 9월 27일 공미화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23) 이말테 목사(Malte Rhinow, 1957-)는 독일 뮌헨 출신으로 독일 루터회 파송 선교사이자 한국 루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말테 목사의 본명은 ‘말테 리노’이지만, 한국식 이름인 ‘이말테’를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24) 재한독일어권교회, 『한독찬송가』 (서울: 컨콜디아사, 2024), 32.

25) 『한독찬송가』 143장의 가사 번역 작업은 이말테, 한정애, 이초룡, 최한열이 공동으로 하였지만, 저작권은 이말테에게 있다.

을 경우, 독일 출판사와 번역가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독일 출판사가 저작권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독찬송가』 136장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Gott gab uns Atem, damit wir leben*)의 저작권은 독일 출판사인 테파우데 뒤셀도르프 출판사와 슈트루베 뮌헨 출판사(Strube Verlag GmbH München), 그리고 번역가인 김성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한독찬송가』 237장 《저녁 지나 밤 되어》(*Abend ward, bald kommt die Nacht*)의 경우에는,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독일의 배렌라이터 카셀 출판사(Bärenreiter Verlag Kassel)와 주어캄프 출판사(Suhrkamp Verlag)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번역가인 한정애는 이 곡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독일 출판사에서 가사 번역에 대한 허가는 하였지만, 공동 저작권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독찬송가』 출간 과정에서 저작권 확보 문제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였으며, 이로 인해 『한독찬송가』 출간 일정이 예상보다 약 1년 정도 늦어졌다. 이는 『한독찬송가』가 기존의 찬송가와 달리 작사가, 작곡가의 저작권과 함께 번역가의 저작권까지 검토해야 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은 독일의 저작권법에 의거하여<sup>26)</sup> 작사가 혹은 작곡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안된 경우에는 찬송가 수록과 관련된 저작권 확보를 위해 원작자(작사가 및 작곡가)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으며, 저작권 확보와 함께 원작자에게 가사 번역 허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공미화 목사는 『한독찬송가』 출간 작업 중 저작권 확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작권은 한국과 독일 양쪽에서 모두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간단한 경우는 독일의 저작권 관리협회 또는 출판사를 통해 저작권이 관리된 경우였습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작곡가를 찾아서 문의해야 하는 경우 저작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더 어려웠고, 작곡가 혹은 작사가가 이미 사망했지만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아 원작자의 상속인을 찾아서 연락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번역을 위해 각 저작권자로부터 번역에 대한 허가

26) 독일의 저작권법 제64조와 65조에 의하면, 가사가 있는 음악작품의 저작권은 가장 오래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를 얻어야 했습니다. 저작권자와 번역자를 위한 승인서를 작성해야 했고, 인쇄 허가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해나가는 일은 정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sup>27)</sup>

공미화 목사의 언급을 통해 『한독찬송가』의 저작권 확보 문제는 작사가, 작곡가, 번역가의 저작권까지 모두 검토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여타 다른 찬송가의 저작권 확보 과정에 비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는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곡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원작자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아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직접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이 출간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적 차이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은 출간 작업 과정에서 일처리 및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였다. 계약서 확인을 예로 들면, 한국인들은 비교적 간단한 계약서 확인 절차를 선호했던 반면, 독일인들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선호하였다. 또한 한국인들은 협업자들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업무 처리를 구두(口頭)로 진행하고자 했던 반면, 독일인들은 업무 처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서류로 문서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에 익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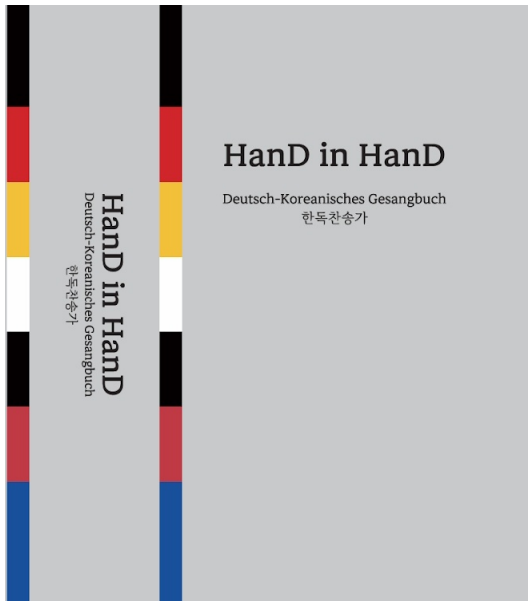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차이를 경험하였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정중한 의사소통을 중시했던 반면, 독일인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공미화 목사는 “『한독찬송가』 출간을 준비하면서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한국과 독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 간

27) 2024년 9월 27일 공미화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의 유대감 및 연대감이 돈독해졌다”<sup>28)</sup>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한독찬송가』 프로젝트 팀이 추구한 한국과 독일 간의 결속력은 『한독찬송가』 앞표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진 1〉은 『한독찬송가』의 앞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좌측 하단의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흰색, 노란색은 한국의 오방색(五方色)을 상징하며, 좌측 상단의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은 독일 국기인 삼색기(三色旗)를 상징한다. 또한 ‘HanD in HanD’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손에 손잡고’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HanD’는 한국을 의미하는 ‘Han’과 독일을 의미하는 ‘D’(Deutschland)의 결합으로서 한국과 독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진 1〉 『한독찬송가』 앞표지 부분<sup>29)</sup>



28) 2024년 9월 27일 공미화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29) <https://kyoposhinmun.de/koreaner/2025/03/03/22691/> [2025년 1월 25일 접속].

#### Ⅳ. 『한독찬송가』 출간의 의의

##### 1. ‘회중 찬송’을 통한 예배적 맥락

회중 찬송은 예배 시간에 회중이 모두 함께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며,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회중 찬송인 코랄(chorale)이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코랄은 공인된 찬송가, 그레고리안 찬트(Gregorian chant)에서 파생된 선율, 종교개혁 이전의 민요, 세속적 멜로디를 차용한 노래, 루터가 직접 작곡한 찬송 등이 포함된다.<sup>30)</sup> 한편, 이상일은 루터의 회중 찬송의 중요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루터의 회중 찬송은 회중을 배려한 음악으로 악보를 읽지 못하고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둘째, 루터의 회중 찬송은 다양한 교회 음악을 수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가톨릭 성가, 전통적인 독일 민요, 기악 음악 선율 등을 회중 찬송의 선율로 차용함으로써 회중 찬송은 옛 음악과 새 음악을 예배 음악으로 아우르고 있다. 셋째, 루터의 회중 찬송은 예큐메니컬(ecumenical) 정신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예큐메니컬 정신의 핵심은 ‘다양성 속의 일치’이며, 성별 · 지역 · 언어 · 문화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와 인류가 하나됨을 강조한다. 회중 찬송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언어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의 차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결속을 도모한다.<sup>31)</sup> 또한 이상일은 21세기 현대 문화에서 회중 찬송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회중 찬송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회중 찬송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폭넓게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향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sup>32)</sup> 권순호는 회중 찬송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적인 찬송을 널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중 찬송은 한국의 전통 민요의 특성을

30) 이인선, “회중찬송의 역사적 발달과 찬송가 교육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6.

31) 이상일, “루터의 음악신학과 예배에서의 음악사용,” 『장신논단』 48/4 (2016), 113-115.

32) 이상일, “21세기 한국문화와 회중찬송,” 『장신논단』 37 (2010), 202-210.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우리 민요를 세속 음악으로만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회중’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非)기독교인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회중 찬송은 지역·신분·연령·빈부 격차에 구애 받지 않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하며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3)</sup> 한편 문성모 목사는 연구자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회중 찬송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회중 찬송의 본질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중 찬송의 선율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쉬운 선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중 찬송은 대중이 쉽게 알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많이 차용하여 작곡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중 찬송은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배, 아프리카의 예배, 인도의 예배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각 나라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토착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회중 찬송은 예배의 토착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34)</sup>

문성모 목사가 정의하는 회중 찬송의 본질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보편성’,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중성’, 각 지역과 민족의 특성을 반영한 ‘토착화’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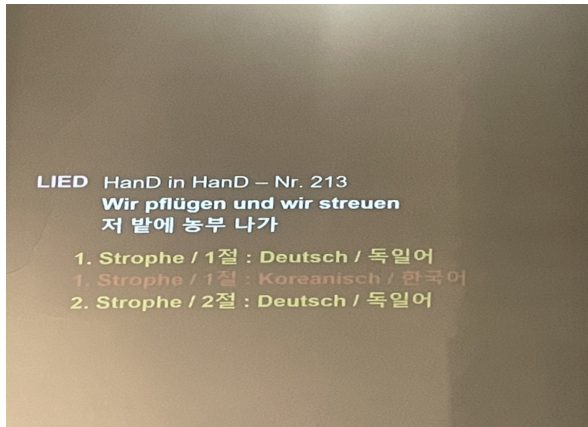
『한독찬송가』의 출간의 의의로는 첫째, 『한독찬송가』는 찬송가를 모국어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회중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루터가 독일어로 쓰여진 회중 찬송을 보급함으로써 독일 민중들이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한독찬송가』의 보급으로 인해 재한독일어권교회 및 독일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자유롭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독찬송가』는 한국과 독일의 이민 교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예배 참

33) 권순호, “한국 교회음악의 주체성 확립: 찬송가를 중심으로,” 『연세음악연구』 4 (1996), 29-31.

34) 2024년 10월 21일 문성모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회중들을 배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한독일어권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를 각 절(verse)마다 한국어와 독일어로 번갈아가며 부른다.<sup>35)</sup> <사진 2>는 재한독일어권교회 예배에서 『한독찬송가』 213장을 부르는 순서를 보여준다.

<사진 2> 재한독일어권교회 예배 중 부르는 『한독찬송가』 213장 순서<sup>36)</sup>



둘째,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평탄한 선율을 가지고 있으며, 각 성부의 음역대가 노래를 부르기에 무난한 편이다. 또한 리듬과 화성 구조 역시 간결하며, 악구의 종지 위치도 명확하다. 이는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가 음악적으로 훈련받은 일부 전문가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모두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독찬송가』 출간 과정에서 찬송가를 통한 회중들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에큐메니컬 정신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곡들 중 제재 공동체(Taizé Community)

35) 만약 예배 참석자가 독일어(혹은 한국어)를 모를 경우, 각자의 모국어로 찬송가를 불러도 상관없다.

36) 이 사진은 연구자가 2024년 10월 13일 재한독일어권교회 예배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에서 불리는 찬송가들을 다양하게 수록했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폐제 공동체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정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프랑스 수도회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파 분열을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초교파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독찬송가』에 출간은 그리스도인들의 교리와 교파 간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한다. 또한 『한독찬송가』는 찬송가 수록에 있어 기존 예배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gospel song), 어린이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 그리고 독일 및 여러 나라의 민요 선율을 차용한 성가 등 다양한 장르와 음악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찬송가의 외연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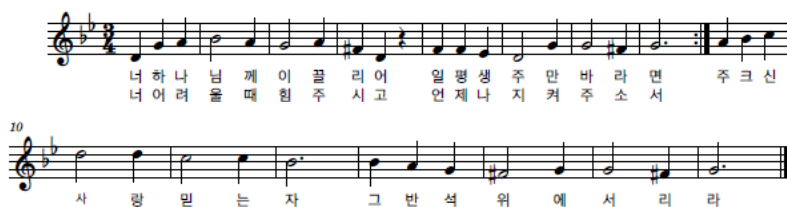
넷째, 『한독찬송가』의 출간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독일 찬송가의 한국 내 토착화 과정과 한국 찬송가의 독일 내 토착화 과정을 기대할 수 있다. 토착화(土着化)란 외부에서 유입된 제도와 문화가 지역 사회에 적합하게 변형되어 뿌리를 내리고 동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중 찬송은 회중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지역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물이므로, 회중 찬송과 토착화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회중 찬송은 한국과 독일의 예배 문화에 맞추어 토착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문성모 목사는 회중 찬송과 토착화의 관계를 ‘한국적인 찬송가’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서구 중심주의 사상에 길들여진 우리나라의 예배 음악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한국과 독일의 찬송가가 토착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독찬송가』 출간을 계기로 서구 중심주의적인 회중 찬송에서 벗어나, 서구의 회중 찬송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회중 찬송으로 토착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당에 드럼, 피아노, 오르간 같은 서양의 악기가 놓여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 전통의 악기인 장고, 북, 가야금을 예배당에 놓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배 음악이 한국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서구 중심주의 사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한국 찬송가가 독일에서는 독일의 예배 문화에 맞게 토착화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한독찬송가』에 수

록된 독일을 포함한 서구의 찬송가를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가 아닌 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 악기인 북과 장고, 혹은 가야금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구 중심주의적인 회중 찬송은 지양하되, 한국의 문화와 색채를 반영한 회중 찬송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sup>37)</sup>

『한독찬송가』 3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Wer nur den lieben Gott lässt walten*)는 독일의 시인이자 작곡가인 게오르크 노이마르크(Georg Neumark, 1621-1681)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Wer nun den lieben Gott lässt walten*)를 문성모가 한국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한 찬송가이다. 〈악보 4〉와 〈악보 5〉는 노이마르크와 문성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보여준다.

〈악보 4〉 노이마르크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한독찬송가』 2장)<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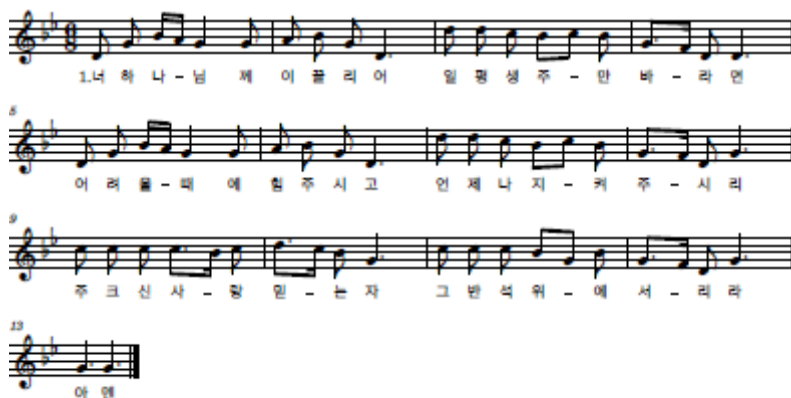


노이마르크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3/4박자의 g단조 곡이며, A-A-B의 악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문성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노이마르크의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노이마르크의 음악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문성모의 곡은 6/8박자의 계면조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G-B $\flat$ -C-D-F) 선율을 살펴보면 굿거리장단 반주와 잘 어울리는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독찬송가』 3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독일 찬송가를 한국적 색채가 가미된 찬송가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으며, 문성모가 지향하는 ‘토착화된 찬송가’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7) 2024년 10월 21일 문성모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38) 이 곡은 노이마르크가 1657년에 작사, 작곡한 곡이며 이 곡의 저작권은 현재 찬송가 공회가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제시된 악보에서는 독일어 가사를 생략하였다.

〈악보 5〉 문성모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한독찬송가』 3장)



## 2 ‘콘트라팍툼’의 활용과 디아스포라

콘트라팍툼은 ‘모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콘트라파체레’(contrafacer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기존의 선율을 차용하여 새로운 가사를 덧붙이는 작곡 방법을 의미한다. 찬송가에서도 콘트라팍툼 작곡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구전되고 있는 기존의 전례 음악 및 세속 음악 선율에 종교적인 가사를 붙인 콘트라팍툼 찬송가가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유입되었을 때, 구전되는 민요 선율에 성경의 교리 가사를 덧붙인 콘트라팍툼 음악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최기천에 따르면, 예배 음악으로서의 콘트라팍툼의 긍정적 영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예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배 시 두 나라의 예배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율을 기반으로 작곡된 콘트라팍툼 찬송을 부른다면,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적 교류가 가능해진다.<sup>39)</sup> 박사라는 콘트라팍툼을 예배 음악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콘트라팍툼 찬송가가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주며,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sup>40)</sup> 문성모 목사는 연구자가 진행했던

39) 최기천, “콘트라팍타(contrafacta)의 교회선교 음악으로서의 가능성: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교회음악신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84-85.

40) 박사라, “찬송가 〈주님께 영광〉의 수용과 콘트라팍툼에 대한 고찰,” 『성경과 신학』

인터뷰에서 콘트라팍툼과 관련하여 한국 찬송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루터의 코랄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오랜 시간 구전되어 온 민요 선율을 차용하여 찬송가로 만든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율, 즉 우리 민요를 수용하여 찬송가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140년 기독교 역사를 반영한 찬송가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3·1 운동과 8·15 광복절 기념과 관련된 찬송가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와 같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민요 선율을 차용한 콘트라팍툼 찬송가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sup>41)</sup>

문성모 목사에 따르면, 콘트라팍툼 찬송가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산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및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의 삶을 주제로하는 ‘한국적인’ 찬송가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디아스포라는 ‘~을 넘어’, ‘~를 지나’라는 뜻의 ‘dia’와 ‘흘뿌리다’라는 뜻의 ‘speirein’의 합성어인 동사 ‘diaspeirein’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단어이다. 디아스포라 문화는 본국(本國)의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며, 타국에서의 문화와 대립하기도 하고, 동화되거나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장되었으며, 20세기 이후의 디아스포라는 이민자, 난민, 소수 민족 사회, 망명 등 다양한 이주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디아스포라 집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독일인과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 집단에 한정된다.

『한독찬송가』의 디아스포라적 의의는 첫째,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한국과 독일의 콘트라팍툼 찬송가를 통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문화와 음악에 대해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독찬송가』 83장 《성 마르틴》(*Sankt Martin*)은 19세기 독일의 구전 민요 선율을 차용하여 만

106 (2023), 140-141.

41) 2024년 10월 21일 문성모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든 콘트라팍툼 곡이다. 이 곡의 가사는 작자 미상이며, 성 마르티누스(Sanctus Martinus Turonensis, 316-397)의 현신적인 삶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곡은 독일의 초등학교에서 매년 11월에 열리는 성 마르틴 등불 축제에서 학생들에 의해 불려지는 곡으로서, 독일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민요이기도 하다. 성 마르틴 등불 축제는 독일의 기독교 연례행사 중 중요한 행사이며,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이 축제를 위해 연극, 등불 행진, 노래 부르기, 음식 나눔 행사 등을 준비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서울독일학교 및 재한독일어권교회에서 연합하여 매년 11월 셋째주 월요일마다 성 마르틴 행사를 주최한다. <악보 6>은 『한독찬송가』 83장 <성 마르틴> 악보를 제시한다.

<악보 6> 『한독찬송가』 83장 <성 마르틴>(Sankt Martin)<sup>42)</sup>

1. Sankt Mar - tin, Sankt - Mar - tin, Sankt - Mar - tin ritt durch  
1. 성 마 틴 성 마 틴 거 셴 눈 보 라 를

4 Schnee und - Wind, sein Roß, das trug ihn fort ge - schwind. Sankt - Mar - tin ritt mit -  
해 지 머 힐 차 게 말 을 달 린 다 따 듯 한 망 토 -

8 leich - tem Mut: sein - Man - tel deckt' ihn warm - und gut.  
덕 켜 에 강 한 추 위 에 도 끄 덕 없 네

마찬가지로, 『한독찬송가』 128장 <예수랑>(Hand in Hand)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 선율을 차용한 콘트라팍툼 찬송가로, 문성모가 가사를 붙이고 편곡한 곡이다. <예수랑>의 가사는 남북으로 갈려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편, <예수랑>의 가사 내용은 이념의 차이로 인해 조국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던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차용된 선율인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

42) 이 곡의 한국어 가사는 이말테와 이초롱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저작권은 이말테에게 있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다. <악보 7>은 『한독찬송가』 128장 《예수랑》을 보여준다.

<악보 7> 『한독찬송가』 128장 《예수랑》

1. 예 - 수 랑 - 예 - 수 랑 - 예 수 - 합 - 께 -  
 1. Hand - in Hand, Hand - in Hand, Je - sus - mit - uns, -

5  
 분 - 단 의 - 고 - 개 - 를 - 넘 - 어 간 - 다  
 ge - hen wir - ü - ber - den - Berg - der Teilung.

9  
 예 수 - 랑 고 개 - 는 - 동 일 - 고 - 개 -  
 Mit Je - sus wird er - zum - Berg der - Ein - heit. -

13  
 다 - 합 께 - 손 - 잡 - 고 - 넘 - 어 가 세  
 An - sei - ner - Hand - ist - kein - Berg - mehr zu hoch.

『한독찬송가』가 출간된 이후, 재한독일어권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끝날 무렵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한국 찬송가 한 곡과 독일 찬송가 한 곡을 선택하여 함께 배우고 부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다양한 찬송가 레퍼토리를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과 독일 음악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하며, 찬송가 가사를 통해 한국어와 독일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공미화 목사는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많은 한국 찬송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선율과 장단에 기반하여 작곡된 곡들이기 때문에, 독일인들에게는 한국적 색채가 가미된 한국 찬송가가 낯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독일 찬송가 역시 한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이 많다”면서 “『한독찬송가』의 출간을 통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찬송가를 배움으로써 한국과 독일 간의 문화적 소통의 기회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sup>43)</sup>

둘째,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콘트라팍툼 찬송가는 한국과 독일어권 국가의

이민 교회 성도들이 이민자로서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용식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 교회는 이민자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되며, 이민자 사회의 소식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다지는 공간이기도 하다.<sup>44)</sup> 재한독일어권교회의 성도들과 독일어권 국가의 한인 이민 교회 성도들은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자국(自國)의 선율을 기반으로 한 콘트라팍트 찬송가를 함께 부름으로써 공동체적 의식을 경험하고, 이민자로서의 심리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면서

『한독찬송가』의 출간 준비 작업은 한국과 독일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출간 준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분에 종사하고, 특정 기독교 교단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기독교 교단에 속한 이들이다. 이는 『한독찬송가』의 편찬 과정이 ‘다양성의 존중’을 전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한독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들은 한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에서 불리는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록된 찬송가들의 작곡 시기도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대에 작곡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사 번역에 있어서도 번역가들의 독창성과 예술적 역량을 최대한 존중하며, 동일한 곡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번역을 동시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은 출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한국과 독일 협업자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협업자들 간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독찬송가』 출간의 의의를 논하자면 첫째,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회중

43) 2024년 9월 9일 공미화 목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용.

44) 이용식, “미주 한인사회의 디아스포라 음악문화: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47 (2020), 136-138.

찬송과 에큐메니컬 정신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독찬송가』를 통해 한국과 독일어권 국가의 예배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비교적 평탄하고 무난한 음악적 구조 덕분에 회중들이 예배에서 찬송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로 다른 나라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국가의 찬송가의 토착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에큐메니컬 정신의 회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서 불려지는 찬송가들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교파와 교리 간의 차이를 넘어 찬송가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한독찬송가』의 출간으로 인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 및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한국과 독일의 음악과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즉, 『한독찬송가』는 단순히 예배적 기능을 넘어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및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독찬송가』는 한국 찬송가와 독일 찬송가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그동안 영미권 찬송가 수용 위주였던 기존 찬송가에 대해 찬송가 수록과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독찬송가』는 한국과 독일어권 이민 교회의 성도들이 자국의 찬송가를 보다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심리적 유대감을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독찬송가』가 출간된 지 1년이 채 안된 시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독찬송가』가 어떻게 재한독일어권 교회 및 독일어권 국가의 한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배 음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과 독일 간 문화적 교류의 기능으로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즉, 예배자들이 『한독찬송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예배에서 사용되는 기존 찬송가<sup>45)</sup>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로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독찬송가』 수용과 관련하여 이민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며 어떠한 비

45) 앞서 언급했듯이 재한독일어권 교회에서는 『독일 개신교 찬송가』를 사용하고, 독일어권 국가의 한인 교회에서는 2006년 발간된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한다.

평의 관점들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글검색어:** 한독찬송가, 재한독일어권교회, 회중 찬송, 콘트라팍툼, 디아스포라

**영문검색어:** Korean-German Hymn, German-speaking Church in Korea,  
Congregational Singing, Contrafactum, Diaspora

### 참고문헌

- 권순호. “한국 교회음악의 주체성 확립: 찬송가를 중심으로.” 『연세음악연구』 4 (1996): 21-44.
- 박사라. “찬송가 〈주님께 영광〉의 수용과 콘트라팍툼에 대한 고찰.” 『성경과 신학』 106 (2023): 125-145.
- 이상일. “21세기 한국문화와 회중찬송.” 『장신논단』 37 (2010): 190-218.
- \_\_\_\_\_. “루터의 음악신학과 예배에서의 음악사용.” 『장신논단』 48/4 (2016): 91-118.
- 이용식. “미주 한인사회의 디아스포라 음악문화: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동양음악』 47 (2020): 131-168.
- 이인선. “회중찬송의 역사적 발달과 찬송가 교육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1.
- 재한독일어권교회. 『한독찬송가』. 서울: 컨콜디아사(Concordia Verlag Korea), 2024.
- 최기천. “콘트라팍타(contrafacta)의 교회선교 음악으로서의 가능성: 마틴 루터 (Martin Luther)의 교회음악신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하재승. “A Study of the German Hymns in Representative Korean Hymnals.” 『개혁논총』 21 (2012): 231-258.
- Park, Sa Ra. “Das Liedrepertoire der evangelischen Kirche in Korea – Interkulturelle Beziehungen zwischen dem deutschen und dem koreanischen Kirchenlied.” Ph.D. Dissertation, Johann-Wolfgang-Goethe-Universität zu Frankfurt am Main, 2020.

### 인터넷 자료

<https://kyoposhinmun.de/koreaner/2025/03/03/22691/> [2025년 1월 25일 접속].

## 국문초록

## 『한독찬송가』의 출간과 그 의의

이 지 현

본 연구는 2024년 7월에 출간된 『한독찬송가』의 편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독찬송가』의 예배 및 디아스포라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독찬송가』는 재한독일어권교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의 일원이 된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간되었으며, 한국과 독일의 여러 교단의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으로 5년여에 걸쳐 제작되었다. 특히 『한독찬송가』의 출간 과정은 ‘다양성의 존중’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은 『한독찬송가』에 찬송가 수록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시대 및 교파의 찬송가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사 번역 과정, 그리고 출간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국과 독일의 협업자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예배 및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의 『한독찬송가』 출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예배적 맥락에서 『한독찬송가』의 출간은 회중 찬송과 에큐메니컬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국과 독일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각자의 모국어로 자유롭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독찬송가』 출간의 디아스포라적 의의는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의 확대와 한국 찬송가와 독일 찬송가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어권 이민 교회의 성도들이 이민자로서의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Abstract

The Publication of *Korean-German Hymn* and Its Significance

Lee, Jihyu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ilation process of *Korean-German Hymn*, which was published in July 2024, and to reflect on its liturgical and diasporic significance. *Korean-German Hymn* was published as part of a project to commemorate the 20<sup>th</sup> anniversary of German-speaking church in Korea becoming part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and it was created over a period of five years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volunteers from various denominations in both Korea and Germany. In particular, the publication process of *Korean-German Hymn* demonstrated the respect for diversity, which not only influenced the inclusion of hymns from various eras and denominations but also contributed to overcoming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German collaborators during the hymn selection, lyric translation, and publishing processes. From the perspectives of liturgy and diaspora, the significance of the contribution of *Korean-German Hymn* is as follows: In the liturgical context, the publication of *Korean-German Hym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storing congregational singing and the spirit of ecumenism, allowing the believers in both Korea and Germany to sing hymns freely in their respective native languages during worship. The diasporic significance of the publication lies in the expansion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Germany, showing a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German hymns, and allowing the believers in

Korean and German-speaking immigrant churches to experience an sense of solidarity as immigrants.

[논문투고일: 2025. 02. 19]

[논문심사일: 2025. 03. 19]

[게재확정일: 2025. 03. 27]